

정법 바로 보는 눈, 깨달음 기반



36 정법안장

‘정법안장(正法眼藏)’은 ‘정법의 눈을 간직하고 있음’ ‘바른 법안을 간직하고 있음’이라는 뜻이지만, 그러나 이 말 속에는 보다 다양한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 둘째,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심오한 진리, 셋째, 정법(진리)을 볼 수 있는 바른 안목(正法眼). 넷째, 불교의 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에게 있는 정법안장(正法眼藏)과 열반묘심(涅槃妙心)을 제자 마하가섭에게 전하노라.”
 ‘열반묘심’은 ‘깨달음을 얻은 마음의 경지는 미묘하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부처님이 깨달으신 정법안장과 열반묘심의 심오한 이치는 언어문자로는 표현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이것은 바로 선(禪)의 진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을 가섭존자에게 이심전심의 방법으로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염화미소(拈華微笑, 부처님께서 꽃을 들어 보이자 마하가섭이 미소를 짓다)’의 고사로서 다른 말로는 ‘염화시중(拈華示衆, 꽃을 들어 대중들에게 보이다)’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법안장(正法眼藏)이란 그 의미가 둘째의 해석인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심오한 진리’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것은 <대법천왕문분결의경>에 있는 말

선종의 뿌리 ‘염화미소’에서 시작돼 선의 바른 안목, 지혜눈이 열려야 가능

리를 완전히 체득해 올바른 가르침(正法)을 볼 수 있는 지혜의 눈 등.

이 네 가지 중에서 오늘날 선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은 두 번째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심오한 진리’와 세 번째와 네 번째를 합한 ‘정법(진리)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안목)’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심오한 진리와 정법(진리)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이란 어떤 것일까?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는 존재의 실상(존재의 귀결체)에 대한 파악입니다. 즉 인간을 비롯한 모든 존재는 무상한 존재이며, 근본적으로 실체가 없는 무아이며, 인연의 법칙에 의하여 생성 소멸하는 존재, 즉 ‘공(空)’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법(진리)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이란 다른 아닌 부처님께서 깨달은 진리를 제대로 볼 줄 아는 눈으로, 즉 ‘일체는 모두 다 공한 존재(一切皆空)’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른 법(진리)이 무엇인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존재의 실상은 무엇인지 볼 줄 아는 안목을 ‘정법안(正法眼)’ 또는 ‘정법안장’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반이지혜(般若智慧)’라고 합니다.

‘정법안장’이 처음 등장하는 경전은 대법천왕이 부처님께 의문 나는 점을 물었다고 하는 <대법천왕문분결의경(大梵天王問佛決疑經)>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대중들을 모아 놓고 설법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법상에 올라가 한참 침묵하고 계시다가 꽃 하나를 들어 대중들에게 보였습니다. 모든 대중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라 모두 어리둥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제자인 가섭존자가 아무 말 없이 부처님을 향하여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직 가섭만이 부처님께서 꽃을 든 진의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인데 이 경 자체가 위경(僞經, 후대에 만든 경전)이므로 역사적 사실은 아닙니다. 염화미소가 시사하는 바는 선(禪)이란 부처님께서 직접 전해주시는 진리라는 점을 강조하여 교학보다 우월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픽션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선종(禪宗)의 뿌리는 이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안목입니다. 안목이 없으면 그는 눈을 뜨고 있어도 보거나 만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안목이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식과 경험, 사유가 깊어야만 안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참선수행도 마찬가지이고 삶을 살아가는 것도 사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목이 없으면 실수를 반복하고 했던 일을 또 고치는 이중 삼중의 과오를 되풀이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불교의 교리를 해석하고 진리를 발견하고 깨달음을 탐구하는 일도 안목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안목은 목적이요 도달하는 데도 필요하지만 도달한 후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선의 바른 안목 즉 ‘정법안’은 지혜의 눈이 열려야 가능한 것입니다.

‘정법안장(正法眼藏)’을 해석할 때 이 네 자를 어떻게 끊고 붙여야 할지 좀 고민되는 때가 있습니다. 우선 ‘정법(正法)’이라고 하면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 또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바른 진리’가 되고, ‘정법안(正法眼)’이라고 하면 바른 법안으로서 ‘정법(진리)을 볼 수 있는 올바른 눈(眼)’이 됩니다. 그리고 ‘정법안장(正法眼藏)’이라고 하면 ‘정법(진리)을 볼 수 있는 올바른 눈(眼)을 간직(藏)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법안(法眼)’ ‘혜안(慧眼)’ ‘불안(佛眼)’과 동의어인에는 틀림없습니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깨달은 여인들의 수행법

경의 뜻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 참 독경

향련

신라시대 서라벌에 남편 박신(朴信)과 부인 설씨(薛氏)가 왕성 밖에서 조그마한 상점인 연꽃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사십 초반이 되도록 아이가 없어서 태우던 이 부부는 어느 날 관음사에서 백일기도를 한 후 집으로 돌아가던 중, 눈길에 쓰러진 길인행사의 노파를 구해주었다.

사십에 과부가 되고 오십에 두 눈마저 멀게 된 이 노파는 떠돌이 생활 가운데서도 <관음경><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을 항상 외워서, 거구로도 외울 정도로 통달한 상태였다. 박씨 부부는 의지할 데 없는 노파를 양어머니로 모시고 살면서 <관음경>을 가르쳐 주기를 청했고, 날마다 밤이면 셋이서 <관음경>을 외우며 뜻을 새겼다.

그렇게 삼년이 흐른 어느 봄날, 노파는 설씨부인에게 “주인댁 뱃속에 태어나고 싶다”는 말을 남기고, 다음날 아침 자기 방에서 <관음경>을 앞에 놓고 오우에 단정히 좌선 자세로 앉아 숨을 거두었다. 노파가 죽고 나서부터 설씨의 몸에 태기가 왔다. 부부는 열달만에 천금과 같은 딸을 얻었고, 이름을 향련(香蓮)이라고 지었다. 향련은 커갈수록 선녀와 같은 미모와 총기를 보였다. <관음경>을 외우는 것은 물론이요, 열살 때부터는 대장경을 혼자서 읽고 이해했다. 글방의 선생이 놀랐고, 효심이 깊어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했다. 어느 날, 길에서 향련이 대가 선사를 만나 선문답을 펼쳤다.

“법화경에 ‘용녀성도(龍女成道)’ 이야기에 의하면, 용녀는 8세 때 부처님께 보주(寶珠)를 바치고 득도하였는데, 저는 지금 열 살 나이로서 보주가 없습니다. 그래도 성불할 수 있습니까?”

대가 선사는 통명스럽게 대답했다. “그런 것을 물어뵈려면 산방으로 오나라.” “승속(僧俗), 산천이 도량 아닌 곳이 없사오니 제 질문에 어서 대답해주세요.”

어름아름아름 대가 선사를 본 향련은 날카롭게 할(喝)을 하고, 선사가 수하고 있는 가사를 끌어내 려고 했다.

한 번은 향련의 나이 열 여섯, 사월 초파일 때 일

을 떠났다. 향련은 양친을 위해 불전에 지성으로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그후 아름다운 향련에게 지체 높은 집에서 혼담이 무수히 들어왔지만, 그녀는 결혼에 뜻이 없었다.

어느 화창한 봄 날, 향련은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자신의 방안에서 <관음경>을 앞에 놓고 단정한 좌선 자세로 숨을 거두었다. 향련의 치마폭에는 계승이 적혀 있었다.

“나는 본래 속세 떠난 입천(林泉)의 벗이었는데/ 인연 따라 홍진(紅塵)을 밟았네/ 이제 속세에 더 깊이 빠지지 않기 위하여/ 십일면관음보살로 돌아가려네.”

향련의 시인은 대가 선사가 정중히 거두어 다비했다. 불이 활활 타오르자 한 줄기 서광(曙光)이 하늘을 찌를 듯 하더니, 그 빛줄기는 관음사 쪽으로 사라졌다. 향련의 몸

에서는 오색의 사리가 무수히 쏟아졌다. 이상은 <관음경> 설화에 나오는 이야기다. 일심으로 경전을 읽고 외우는 간경(看經)과 독경(讀經) 역시 훌륭한 수행방편임을 보여준다.

육조 선사는 제자 법랍이 문구 외우는데만 급급해 험뎀거릴 뿐 번뇌망상의 분별심을 쉬지 못함을 보고, “참 독경이란 경의 뜻이 마음 가운데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을 말하며 이렇게 마음을 밝혀 성품을 보는 것을 보살”이라 하였다. 지식을 좇아 험뎀이는 마음을 쉬고 계승 하나라도 깊이 새기고 몸소 실천해 깊은 뜻을 스스로 체득해야 참다운 수행이라 할 것이다.

김성우 기자

경전 읽고 외우는 간경·독경 훌륭한 수행방편 10세부터 ‘관음경’ 줄줄 ... “심등은 어디 있나?”

이었다. 절에 올라가니 한 스님이 신도들에게 등(燈) 시주를 청하고 있었다. 향련은 그 스님에게 다가가 질문했다.

“스님, 이 절에 장식한 무수한 등에서 어떤 등이 제일 밝나요?”

“불전에 걸어 놓은 비싸고 큰 등이 제일 밝지.” “불등(佛燈)은 많은데 심등(心燈)은 어디 있나요?”

“.....”

향련은 그 스님의 머리를 주먹으로 두 대 갈겼다. 뜻밖의 분변에 스님이 화를 내는데, 이를 지켜본 대가 선사는 미소지를 뽐이었다.

향련의 나이 열일곱이 되던 해 양친은 모두 세상

신행게시판

●**팔만대장경 강설대법회 ‘능엄경’**=합천 해인사가 9월 27일 오후 2시 보경당에서 제18회 팔만대장경 강설대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는 <능엄경>에 대한 스님(은해사 승학대학원장)이 법사로 나서 ‘마음이란 무엇인가’를 밝히며 다양한 수행법을 소개한다. (055)934-3000

●**백고좌법회 회향 산사음악회**=대구 범양사가 9월 29일 오후 7시 대광당에서 백고좌법회회향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법승 스님, 포탈라 솔리스트 앙상블, 대구시립합창단 수석테너 정무시, 카페

음악 김민영씨 등이 출연한다. 이어 30일 오전 10시 큰법당에서 해인사 율주이신 종진 스님을 모시고 제18회 보살계 수지대법회를 봉행한다. (053)766-3747

●**선운문화제**=고창 선운사가 9월 27-28일 제1회 선운문화제를 개최한다. 27일 오전 10시 ‘보은염이온 행사’를 시작으로 ‘모든 생명의 행복을 기원하는 영산대제’ ‘전통다례시연 및 시음회’ ‘산사음악회’가 연이어 열린다. 28일 오후 2시 세미나실에서는 선운사의 역사와 고승대덕의 행적을 조망하는 학술세미나가 개최된다. (063)561-1422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밤은길 아바타 센터
 전하는주는 본래는 내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문의 상담 현황**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02-5512-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패철 보는법

하루 저녁이면 깨우치는

종수지리이제

나경 사옹법

전용원지음

연습용 19층 갈라 나경 도해 삽입

이 책 구입한 분
www.kbs.cc에서
나경 사옹법 강의
무료 시청

나경을 쉽게 배운다
 양택론 음택론
 명당 잡는법
 수맥 측정과
 수맥과 차단법

진산

나경은 나침반이다. 복잡하거나 어려운 이유가 없다. 누구나 이 책 한권이면 하루밤에 나경 사옹법 뿐만 아니라 음택, 양택, 수맥, 명당 잡는 법까지 확실히 배울 수 있다.
 문학박사 전용원 저. 표지문본 전체 울랄라 46배판 영구보존 정장본. 정가 25,000원. 할인가 22,000원 무료배송. 한번에 2권 이상 구입시 원당 2천원 추가 할인 서울 중구 광희 2가 303-15 주문전화: 1688-1137 하나은행 388-910003-23704 한국역학협회

2009년의 신수 비결이 출간 되었습니다.
“호타비결 = 신수비결”

- 2009년 개인의 사주를 감정하여
- 직업, 재물, 사업, 이성 운과 인연
- 성적 및 진학 운, 일진 및 외출하는 날
-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나 운세를 바로 볼 수 있고
- 정확하여 적용율이 높습니다.

정가 25,000원.

대폭 할인 서비스 안내
 그동안 성원에 감사드리며, 아래의 책들을 1개월 동안 20% 할인 서비스 합니다.
 ●기간: 2008년(양력) 9월 8일 - 10월 7일까지 (1개월)

“이름 대사전”

- 대법원 선정 한자만 사용하여 이름 풀이까지 되어 있고,
- 320여개의 성씨별로 삼원, 수리, 음령, 오행을 맞추고,
-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로 구성
- 개명, 작명, 범명, 상호, 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음.

정가 : 50,000 ⇒ 4만원

“호타 비결전서(상·하)”

- 일년이면 최고의 프로그래밍이 될 수 있는 비서.
- 한글 전용으로 누구나 쉽게 독할 수 있음.
- 전화 질문 및 상담해 드립니다. 정가 : 50,000 ⇒ 4만원(각권)

호타암 주지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권한문 경용 불교상용의식집

경용의식집 5권이면 **염불 [한글염불·한문염불]**에서 경전공부까지 다른책이 필요없게 만들었습니다.

내용 소개

- ①한문염불(기존염불)과 한글염불(경전내용으로 조직)을 집전자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택하여 집전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 ②경전의 내용으로(한글염불+한문염불)과 겸하여 조직하므로 독송 또는 읽음으로써 염불과 경전공부를 동시에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 ③경용의식집은 염불의 순서대로 조직하여 누구든지 쉽게 집전할 수 있게 하고 염불을 위주로 간편하게 편찬하여 소장용이 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 ④경용의식집은 염불 중 ‘운운’을 없애고 집전자의 작은 예로까지 배려하여 염불이 약한 집전자도 부담없게 만들었습니다.
- ⑤염불방법 한가지 소개한다면 ▶삼장하는 청사(청정)는 한문, 1청은 우리말) 염불한다면 염불과 경전공부를 한번에 하게 되므로 별도의 노력없이도 우리말 염불을 쉽게 할 수 있게 될것을 확실합니다.

구 성

- 제1권 : 예경, 각청편 15,000원
- 제2권 : 천도, 시식편 15,000원
- 제3권 : 수계, 방생편 12,000원
- 제4권 : 장의편 12,000원
- 제5권 : 점안편 13,000원

※불사충만 운주사 및 전국 불교서점에서 각권 별도 판매합니다.

문의 및 주문전화
 전화 054)974-1345 핸드폰 011-277-8024
 (농협 211012-52-203756 박명덕)

21세기 불자 자가(自家)기도법

해조(解詔) 범산(梵山)스님이 쓰신 불자 한 사람이 꼭 한 권씩 수지 독송해야 할 **“21C 불자 자가 기도법”**이 드디어 불자들에게 선을 보입니다.

이 책은 한글만 아는 사람이면 자기 집에서 혼자 충분히 기도할 수 있도록 저술하였으므로 불자들에게는 필수적인 경서입니다.

· 해조(解詔) 범산(梵山)스님
 · 1949년 전남 순천출생
 · 佛山 無庵 큰스님을 은사로 득도 수계
 · 법우부 법지예행 자원봉사위원 역
 · 대한불교 원효종 경남주무원장, 중앙총회의원 역
 · 한해동불교대학 대학원교수
 · 한양대학교 대학원교수
 · 한여래암 주지

[논문]
 · 인도불교의 철학적 고찰
 · 원시불교의 선정사상에 대한 연구
 · Buddhism과 인도철학과 제학파의 비교 연구
 · 공사상에 대한 일 고찰
 · 독서문화의 정착 방안에 관한 고찰 등

[저서]
 · 그 속에 길이 있었다 · 웃으며 가는 저승길
 · 공서 국역상용법요집 · 외 전문분야 다수

신간

21C 불자 자가(自家) 기도법

[차례]
 제 1장-기본학술
 제 2장-중요경전
 제 3장-불공편
 제 4장-진언과 다라니
 제 5장-각종발원문
 제 6장-기도체험수기
 제 7장-불사충만수지공덕
 제 8장-내면탐사와 여러33점통기도
 제 9장-자가기도법
 제 10장-불교기초지식
 제 11장-권선문

◆택배발송 (발송비 무료) ◆정가 30,000원
 ◆문의 : 055-761-7462 / 011-552-3222
 ◆계좌번호 : 농 협 801032-51-032261
 우체국 610790-01-001194 (예금주: 여래암)
 홈페이지 www.yerae.com / cafe.daum.net/yeraeam